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지난 설 연휴 광주 틀게이트를 지나던 날, 대형 미디어 월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자주 오작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직접 그 장면을 마주하니 아쉬움이 매우 컸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모색하며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다는 도시 대표 관문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광주가 정체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광주는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데 노력해왔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에 참여한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광주는 미디어 아트 플랫폼, 광주 송정역을 포함한 미디어 아트 창의 벨트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변화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외부 방문객들에게 광주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창의도시로써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분명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많은 도시'가 되는 것만이 목표는

광주, 창의도시로 가는 길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려 했는가? 그 취지에 맞게 광주는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광주의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라는 이름이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디어 아트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려면 예술과 기술의 융합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창의성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와 경험에서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브랜딩 권위자로 손꼽히는 사이먼 안홀트(Simon Anholt)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광주는 ऐसे 얻은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을까?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서 도시 브랜딩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은 많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방향은 다음의 세가지를 짚을 수 있다. 첫째,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광주의 미디어 아트 조형물은 고유한 가치와 이야기를 통한 감동적인 경험을 주기보다는 시각적인 장식 조형물로 인식되기 쉽다. 예술과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로 활용해야 한다. 광주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93개국 300여 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해외 창의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예술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과 같은 기관이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미디어 아트를 광주의 산업과 관광 자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미디어 아트는 전시 이외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광만 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의 팀랩(TeamLab)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 역시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창의 도시는 단순히 기술 혁신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이다. 광주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결국 도시와 사람을 잇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광주만의 이야기'를 통해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도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애인 한 명 누구나 몰래 숨겨두고 싶지요. 보물처럼, 사춘기 때처럼 남몰래 짝사랑한 사람 하나 숨겨두고 싶지요. 가질 수는 없지만 간직하고 싶은 사랑 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 등을 감싸줄 애인 하나 몰래 두고, 사부자기 바라보고 싶지요. 특히 외로울 때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런 사람 하나 두고 싶지요.

그런 애인,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은 그런 사람이 그림습니다. 나를 가장 속 깊히 알고 있는 나를 속 달은 누군가 말입니다.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사랑 듬뿍 받고 싶지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 선생님께 귀염받는 학생, 사장님에게 인정받는 사원, 좋은 독자들로부터 호평받는 작가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야,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란 사랑이 빨강계 익을 때까지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모란 돌이 세파에 휩쓸려 조약돌이 되듯, 사랑도 반질반질 시간과 더불어 여무나 봅니다.

말이 분기했습니다. 잘 살기를 바라며 딸의 등 뒤에 서 너의 편이 되겠다고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별이 더 큰 사랑, 지켜주는 사랑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광주 침공

희끗희끗해진 자분치를 보면서 저는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걸 알고, 낮게 몸을 숙였습니다. 나를 낫추는 그 순간, 작은 개미라도 밟지 말아야겠다는 마음, 누군가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애인이 되어 주고 싶은 마음이 쑥쑥 돌아났습니다.

지난 주말, 금남로에 수많은 성조기와 깃발들이 나부꼈습니다. 자기들을 지지해 달라고, 점령군처럼 스피커를 요란하게 틀어놓고 떠드는 소리에 고막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꺼안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강요도 협박도 아니랍니다. 당신들이 타고 온 교회 버스, 거기에 쓰인 문구에는 소리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온유하고 참고 견디는 것, 기다리고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침략자들처럼 정복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 금남로에서 45년 전 쓰러져간 고인들의 애인이 먼저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곡장지대였던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 너무 가혹하게 수탈당해서 항일정신도 강하고 개혁 의지도 강합니다. 그 후로는 아이러니하게 먹고살 것을 찾아서, 서울로 대구 부산으로, 울산 창원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호남에는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딱 한 곳, 이곳뿐입니다. 더는 잃을 것이 없어서 좋은 세상 좀 만들어 보자는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짓밟고 점령하고 싶었는지요.

사랑을 동사라고들 합니다. 형태를 바꾸지요. 뜨거운 우정도 이성 간의 사랑도 어느 순간 무뎠다며지거나 미움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래서 동사라고 하나 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체인 즉, 명사입니다. 속인들의 사랑과 달리,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사랑, 울고 있는 아이를 보듬을 수 있는 인류에는 변하지 않는 빠입니다. 금강석보다 더 단단해서 결코 활용하는 법이 없답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한 예수의 사랑, 그런 명사를 의변하고 마치 유희기간이 지나 변하면 버리는 그런 동사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손님 없는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 먹고, 최고입니다. 엄지척도 해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애인도 되고, 고단하게 귀가하는 회사원의 그림자도 되어 주십시오. 병원에서 힘들게 견디며 한숨짓는 환자, 늦은 밤까지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고심하는 상인들, 직업소개를 기웃거리려는 일일 노동자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눈길도 주고 태극기는 그런 곳에서 힘차게 흔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의 애인이었기에 지금 잘 사는 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존재하고 또 이곳까지 왔을 겁니다. 나날 수록 커지는 게 사랑이라는 그 말을 굳게 믿으며 남의 사랑을 앗아가기보다 각각의 사랑을 존중해주면서, 누군가의 애인이 되어, 작은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커다란 사랑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과 우리의 늘어난 사랑이 합쳐져 서로의 애인이 되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우리 서로, 정다운 말동무, 다양한 애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 등을 감싸줄 애인 한 명, 그 사람이 당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구도심 개발 나서야

거지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시대를 읽지 못했다. 본격적인 역세권시대를 맞아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낳았고 설상가상으로 2020년 6월 준주거·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오피스텔 용적률 마저 250%로 대폭 낮춰 사실상 구도심 내 틈새 주거시장을 원천봉쇄해 버렸다.

민선 8기 들어 지역 주택업계의 지속적인 권외와 설득에도 무반응이던 광주시는 지난해 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종전 15%에서 10%로 조정하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최근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전방·일방 부지 복합소평몰 등 조성, 어등산 복합소평몰 건립, 광주신세계 확장 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지역 경제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이러한 개발 호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역점 사업들과 더불어 구도심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소규모 주거지 개발까지 더해진다면 구도심에 새로운 불거리, 먹거리, 활길거리 등이 생기면서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용도용적률에서 탈피해 민간이 역세권 개발 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이나 공공 오피스로 기부받아 주택 부족 문제나 교통 혼잡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부산은 역세권 상업지역에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75%이하로 10년 임대 거주자가

능한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는 용도용적률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미적용,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대전 역시 원도심의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전북 전주도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율을 대폭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현재 광주 구도심 상업지역을 보면 도심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대도시 부동산 개발 트렌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직장과 주거를 가깝게 해 교통난 해소는 물론 궁극적으로 야간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는 규제 일변도 행정에서 벗어나 도심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적절히 제시했으면 한다. 도시철도 2호선, 상무광천선 등이 완공되면 광주도 본격적인 역세권 시대가 열리며 상업지역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선제적으로 도시 규제완화를 통해 용적율을 완화해 주면서 주차장 확보나 공공시설 기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2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각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 이제는 집행부의 정책 오류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社說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판결...당연한 결과다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달라는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호소가 7년만에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소송에서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지난 20일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와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측에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 동안 새로 도입하는 버스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5%를 시작으로 2040년에는 모든 버스가 설치 대상이 되는데 차량 수로 따지면 내년 2대부터 시작해 2040년 247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항소심 판결 등이 남아있지만 7년만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다. 금호고속측이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장애인차별법에 휠체

어 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터라 피고측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들이 타고 내릴 때 5-1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려 일반 탑승객들이 불편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약자를 위해 그 정도 시간을 참지 못할 일반 탑승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년 재판부가 정부와 광주시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가 각각의 경우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원고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은 버스회사에게도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도 예산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장애인차별법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법 해석을 넓게 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1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남은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보다 전형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국가사적지 훼손한 광산구 무책임한 행정

광주시 광산구의 신창동 유적지(사적)에서 문화유산 전문가 입회 없이 무단으로 굴착 공사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 전문가 입회 없이 임의로 굴착 및 배수관을 설치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옛그레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반월마을 입구 선사유적지를 둘러본 결과 이 곳에 100여m 길이의 콘크리트 배수관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 12일 설치한 이 배수관 공사는 외부 전문가 입회 없이 임의로 진행됐는데 이는 전문가 입회하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당초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광산구가 '광주 신창동 유적 배수로 정비공사'를 해 왔다. 유적지에 있던 자연 배수로에 잡초, 폐기물 등이 누적돼 고인 빗물이 인근 도로로 넘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반월마을 입구 지하도와 가까운 100m 길이 구간은 고인 물이

인근 지하도까지 넘쳐 겨울이면 빙판길로 변해 '긴급 임시조치 구역'으로 정했다. 광산구는 사업 부지가 신창동 선사유적지에 포함돼 있는 만큼 사전에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공사 추진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수로 정비를 시행한다'는 지침을 받았다.

문제는 이같은 굴착공사를 추진하면서 승인 조건인 외부 전문가를 입회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사를 맡은 업체가 발주처인 광산구에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게다가 광산구는 공사가 이뤄진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현장을 확인해 반축을 샀다.

국가사적지에서 전문가 입회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건 자칫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원형을 복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경미한 공사라도 반드시 문화재 보호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제8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박 대통령과 육사 동기이자 친구인 그가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이유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단지 차지철과 총성경쟁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군대를 동원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려고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정보 수사전문가는 이 사건을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터리고 우발적이라고 보기엔 치밀하다"고 평가했다.

김재규 중정부장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탄압을 정당화하려고 김재규가 내란을 획책한 것으로 몰아갔다. 군법회의에서 초고속 재판이 이뤄진 탓에 공판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변호인들이 볼 수도 없었다. 합동수사본부가 메모로 재판을 코치하는 '족자재판'이 진행됐고 재판장 뒤편에 숨어 있던 법관 등이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돈명 변호사가 "재판장은 가만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재판에 관여하는 거냐"고 항의했다는 일화가 있다. 김 전 부장은 사건 발생 두 달 여 만인

12월 20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앞에 탱크가 진주한 상황에서 상고는 기각됐고,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애초 대법원 형사3부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재판부 14명 가운데 6명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낼 정도로 의견차가 컸다. 신군부는 소수의견을 주도했던 양명호 판사를 악명높은 보안사 서빙고실로 연행해 사표를 받아내는 등 사법부를 유린했다.

서울고법이 유족의 신청으로 최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김 전 부장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5·16 쿠데타의 장본인 가운데 한 명인 김중필 전 국무총리의 증언대로라면 김 전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꾀했던 인물이자 그의 명령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총책이었다. 재심에서 두 얼굴을 가진 김 전 부장의 진면목과 역사에서 의문으로 남아 있는 10·26의 진실이 드러날지 궁금하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기고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

수년 전부터 광주의 아파트 공급을 위해 재개발, 민간공원사업 등을 필두로 한 대규모 개발이 반복되고 있다. 주거환경의 전폭적인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는 기여할 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도심 내 저밀한 주택이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원주민이 외곽으로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외곽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의 3배에 달하는 용적률로 40층이 넘는 고층 주거복합건물이 무분별하게 건축되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무등산 조망을 가리고 도심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 정체, 학교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2019년 3월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을 제외한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을 차지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여기에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준주택은 제외하면서, 일반적인 주거복합건물과는 달리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대해서 40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면서 평지포화를 일으킨 바 있다.

반대가 컸던 조례 개정은 수차례 걸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